



12면
무성서원 활용
역사적 가치알린다

전주매일

2020년 5월 29일 금요일 (윤 4월 7일) 제254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道 “수도권발 코로나19 유입 차단”

7차 감염자까지 나와... 송 지사, 긴급방역대책회의 긴장감 고조... 예식장·장례식장 등 추가점검 주문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관련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28일 긴급 방역대책 회의의 하고 27일부터 시행한 10개 업종에 대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조치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과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에 대한 추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태원 클럽발로 28일 기준 서울 인천 경기 포함 10개 시도에 7차 감염자까지 261명이 확인됐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와 관련하여 69명, 서울 삼성병원 관련 9명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에서의 감염이 확산되어 이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과 수도권 소재 지자체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북도 역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송 지사는 수도권 거주자와 교류가 많은 역 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에 대한 철저한 방역대책과 함께 도민 홍보를 통해 생활 속의 방역수칙이 내면화, 생활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공무원 및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27일부터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철저 준수조치로 전환한 10개

업종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이행 상황 등 수시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현장점검에서 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시설과 업종에 대

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주요 대상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료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roup Exercise: 줘바, 태보, 스피닝 등),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PC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주기적 방역소독과 환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고, 특히 수도권 등 타 지역 사람들과 교류가 잦은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28일 이태원 클럽과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예식장 장례식장, 관광지 등에 추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충전, 내달 5일까지 마쳐야

주민센터 통한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접수는 계속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다음 달 5일에 마감된다.

전북도는 28일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을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기간 내에 카드사 홈페이지(웹/앱)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6월 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29일 이후 타 권역(지하

체에서 도내로 이사하였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는 6월 5일 이전에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신청하고 향후 사용지역을 변경해야 한다.

실수로 기부를 선택해 기부금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날까지 해당 카드사에 기부금 정정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요일에 관계없이 세대주라면 언제든지 은행 창구에 방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처음 적용했던 신용·체크카드 충전

금 은행 창구 접수 요일제가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5월 27일 18시 기준 75만9천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마쳐 향후 신청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과 주민 편의를 위해 고려됐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3주만에 전체 대상 가구의 약 98%가 신청을 마친 만큼,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신청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신청이 마감되는 6월 5일 이후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선불카드와 지역

사랑 상품권 접수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 창구 접수의 경우에는 시·군별 자체 여건에 따라 요일제 지속 여부가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김진성 기자

본사 인사

▲유 호 상
임 : 부장
명 : 편집국 정치부
(6월 1일자)
토·일요일 신문 쉼니다.

열흘간의 ‘영화의 향연’

‘무관객’ 전주영화제...세계 첫 온라인 개막 규모 축소... 세계 38개국 영화 180편 선봬

‘독립·예술영화의 향연’ 제2회 전주국제영화제가 28일 오후 8시 한국전문화재단에서 열리는 소규모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시네마 여행에 들어갔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올해 영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관객과 영화인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무관객’ 영화제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한국 경쟁과 한국 단편 경쟁, 국제 경쟁 등 3개 경쟁 부문 감독과 심사위원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한다. 배우 김규리와 이승준이 사회를 맡는 이날 개막식에는 김승수 영화제 조직위원장과 조직위 관계자, 영화 심사위원, 경쟁 부문 출품작 감독 등이 참석했다.

다만 일반 관객들이 없는 무관객으로 치러졌다. 레드카펫과 포토월 행사를 시작으로 사회자 인사, 김승수 조직위원장의 개막 선언, 집행위원장 인사말, 심사위원 소개 등 순으로 치러졌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세계 38개국 영화 180편(장편 115편·단편 65편)을 선보인다. 조직위는 국내 실시간동영상서비스(OTT) 웨이브(WAVE)와 손잡고 국내 국제영화제 최초로 온라인 상영에 나선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전체 180편 중 96편(장편 57편·단편 39편)을 유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나머지 작품은 영상 유통 가능성, 음악 저작권 미해결 등 이유로 온라인 상영이 무산됐다.

영화제 온라인 상영작은 국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관람을 원하는 사람은 웨이브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한 뒤 영화제 홍보 배너를 통해 상영작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결제는 개별 작품별로 가능하다. 한국 장편영화·해외 장편영화·한국 단편영화(특수 상영)는 7000원, 해외 단편영화는 1편당 2000원에 스트리밍으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관객 밀집도를 최대한 낮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도 극장에서 관객과 공식 상영작이 제대로 만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 상영회’를 마련했다.

오는 6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주다지탈독립영화관에서 열리는 장기 상영회에서는 180편 중 174편을 관람할 수 있다.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창작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영화가 관객과 직접 만나지 못하게 된 아쉬움을 달래고, 극장에서 영화를 제대로 보고 싶어하는 관객들을 위해 장기 상영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영작 중 가장 화제가 된 영화를 모아 진행되는 앵콜 상영회 ‘풀링 인 전주’를 영화제 개최 일정 안에 포함해 오는 9월 20일까지 관객들이 올해의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제 개막식의 모든 과정은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 됐다. /정은성 기자

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확대

전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음식점 시설개선을 위해 10억원의 사업비로 100개소에 추진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급속한 외식소비습리

위축으로 외식업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20억원을 증액한 30억원(도비 30%, 시군비 40%, 지방담 30%)으로 300개소에 사업 확대를 결정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해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외식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군산시 GUNSAN CITY

시인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

시민이 직접 만들고 모두가 행복한 이곳, 바로 군산입니다

GUNSAN